

- 2면 작업복, 더는 집에서 빨지 말자
- 3면 실전 노동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등 꼭 받아야
- 4면 노동안전 칼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위험하다
- 5면 전국 소식 / 부평, 서울·남부, 양주, 진천, 부산, 청주
- 6면 바지락 만화 / “금속노조 가입하기 정말 잘했어.”
- 7면 산업이슈 칼럼 / 디지털 전환 나선 조선소, 노조로 뭉치자
- 8면 우리네 맛집 / 오산 함지박칼국수



바지락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1년 4·5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바지락은 사람들을



금속노조 동부산지회는 올해부터 공단선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지회 사무실에 모여 차로 20분 떨어진 금사공단으로 출동했습니다. 공단노동자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식당이 있다면 공단 노동자들을 만나기 수월할 텐데 금사공단은 그마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지회가 생각한 방법은 공단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주차한 차량 손잡이에 <바지락>을 꽂아두기입니다.

“내가 니 차 딱 봐냈데이. <바지락> 안 보든 꼭 찍이쁜데이.”

친구가 일하는 회사 앞에 일부러 들러 친구의 차 손잡이에 <바지락>을 꽂은 한 조합원이 친구에게 짓궂은 카톡 문자를 보냅니다. 800장이 넘는 <바지락>도 여러 명이 함께 뿌리니 순식간에 끝납니다. 차로 오가는 시간이 반입니다.

“에고, 그래도 고생했는데 사진 한 장 박아야 하지 않겠어예.”

지회 사무실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동부산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 조합원입니다.

작업복, 어디서 세탁했나요?

광주 하남산단 5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80.5%, 집에서 세탁해

꼭 일 못 하는 사람들이 작업복 더러운 거로 티 낸다니깐? 이렇게 툭툭거리는 동료들 보면 알맞기 그지없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기름때, 먼지로 작업복이 더러워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니까요. 그러스나 절삭유는 한 번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지요. 세탁해 봐야 거기서 거긴걸 알지만, 옷은 빨아야 하기에 별 고민 없이 집으로 가져갑니다.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말하지 않더라

도, 어느새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작업복을 입는 이유는 유해물질로부터 내 몸과 내 일상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작업복을 내 일상 옷과 같이 빨아도 되는 걸까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걱정은 더 깊어집니다. 따로 세탁한다고 해도 같은 세탁기를 쓰기에 찼찼함은 남습니다. 세탁소에 맡기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이 부담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2면으로 이어짐



유해물질 묻은 작업복, 더는 집에서 빨지 말자

금속노조, 노동자 건강권 위해 공단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요구 ...
김해 골든루트산단 운영 중, 광주·경남 등 추가 설치



주말 근무 없는 금요일이면 공단에서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거나,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작업복을 빨아야 하는데, 가방에 넣자니 찢찢해서 차라리 입고 가거나 쇼핑백에 담아가는 거지요.

작업하며 입고 있을 때야 작업복이지 세탁하려고 벗어놓고 보면 골칫덩이입니다. 단순히 옷이 땀에 젖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뿌려댄 방청제와 세척제, 레진이 흘날린 분진, 용접 때 나오는 쇳가루와 눈에 보이지 않는 흙, 건물 철거 때 나오는 유리가루, 기계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까지. 이 작업복에 무엇이 얼마나 묻어있는지 알 수 없어 더 찢찢합니다.

집에서 작업복을 세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족 건강까지 위협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려면 세면·목욕·세탁과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은 처벌규정이 없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유명무실합니다. 화장실 구석에 세탁기를 갖다 놓거나, 이마저 없는 곳이 대부분이지요.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쇳가루 등 이물질 때문에 세탁기가 자주 고장 나고, 외부에 맡기자니 비용이 발생해 모른 채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 가져가 세탁합니다. 작업복 세탁은 노동자와 노



동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합니다.

광주 하남공단, 김해 골든루트산단에 작업복 세탁소 설치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18년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지자체 선거 때 광주광역시시장 후보들에게 노동자의 사정을 설명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후보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지만, 막상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조사 용역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금속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올해 3월 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에 경남 사회혁신추진단은 2019년 4월부터 준비해 2019년 11월,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열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공단노동자와 가족의 건강권을 위해 세탁소 건립에 이바지했고, 작업복을 수거하고 배송하기 위한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공단노동자 건강권 위해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요구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는 공단의 공장이 주 고객입니다. 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기존 세탁소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일반 세탁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최대 80벌까지 세탁 가능한 대형 세탁기를 갖추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작업복에 맞는 전문 약품을 사용해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기름때도 금방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세탁소에 오가는 품을 줄이기 위해 세탁소가 공장에 가 작업복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송합니다. 세탁소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에 위치해 많은 사업주와 공단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소식이지요?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에 이어 전남 대불산단에 설치할 예정이고, 경남에 세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공단에서 작업복세탁소 설치를 요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지자체, 노동부, 지역·공단 사용자단체에 전달하고 협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조가입 문의 전화

전국 공통 1811-9509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은 꼭 받아야 합니다

[실전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과 향상이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 실전 노동법에서 공단과 주변에 특히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다룹니다. 꼼꼼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문 1 평소에 여섯 명이 일하다 세 명이 일하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답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라는 뜻은 평균과 비슷한 말입니다. 노동자 수가 때로 5명 미만이라도, 지난 1개월 동안 고용한 노동자 평균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균이 5명이 넘더라도 5명에 미달한 일수가 한 달의 절반 이상이면 예외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헛갈리면 금속노조와 상담하세요.

문 2 근로기준법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 2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유급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60시간 일할 수도 있고, 야근, 주말 일해도 50% 가산수당 못 받습니다. 주휴일은 있지만,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문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 3 ▲ **근로계약서 작성** :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 **휴게시간과 주휴일 보장**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중 근무일에 지각이나 조퇴가 아닌, 결근하면 주휴일에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보장** : 근로시간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지만, 최저임금은 보장합니다.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급여 보장** :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많네요.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4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을 어기면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협약으로 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용자는 해고 전으로 원상회복(복직)을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1년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해서 함께 바꾸고 지킵시다.



노조가입 문의 전화 전국 공통 1811-9509

노동부 온라인 진정, 어렵지 않아요. 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에 로그인하고,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검색 → 검색결과 중 '기타 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 클릭 → 진정 내용 입력 후 등록하면 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위험하다

[노동안전 칼럼]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지금 일하는 회사의 직원은 몇 명인가요? 한국에 5인 미만 사업장은 2,000,000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2019년 기준 350만 명 정도니 생각보다 많은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전체 평균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변에 직업병에 걸린 동료를 본 적이 없다고요? 이만하면 안전한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공장이라면 크고 작은 사고도 자주 나지 않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보호받을 수 있어

노동자가 직업병에 걸릴 정도로 공장의 환경이 나쁘면, 모든 노동자의 건강이 좋을 리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아래 화관법) 등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에서 사업주와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안법은 사업주가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안법은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나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은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이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안법에 이런 예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정부는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작은 회사의 경제 사정,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한다고 말해왔지만,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어디에 더 많은가를 보면 단단히 잘못된 변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노동자의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계	1,662	1,757	1,927	1,857	1,400
5인 미만	451	446	510	530	400
	27.1%	25.4%	26.5%	28.5%	28.6%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020년 겨울 언론에 많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어보셨나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징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법입니다.

2016년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등 잇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이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이어 안전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소규모 폐기물 재생업체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분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업체는 과거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까지 됐다고 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마음먹으면 해고가 가능하고,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의무가 없는 회사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설비 교체나 정비는 먼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금속노조와 함께 지킵시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마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터를 바꿀 수 없어도, 노동조합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는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전수경 _ 〈노동건강연대〉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 소식] 인천, 서울·남부, 양주, 진천, 부산, 청주

인천 부평공단 펌텍 사거리 선전전



3.8 세계여성의날, 인천 부평공단에서 장미꽃을 나눠드렸습니다. 인천 부평공단과 펌텍코리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을 응원합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스크 나눔



구로디지털단지역 코사벨광장에서 뮤지션유니온이 버스킹을 하는 가운데 퇴근길 선전전을 했습니다. <구로·금천 직장사이다>와 함께 마스크를 나눠드렸어요.

서울 도심제조업노동자 4대 보험 요구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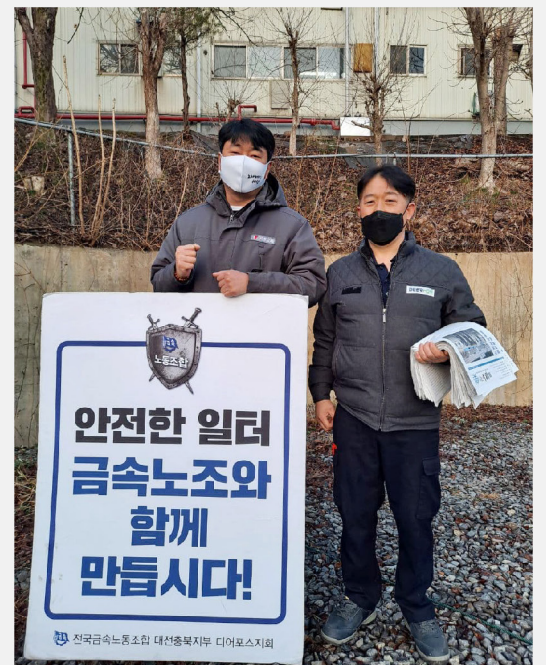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얼리(보석세공) 노동자 등 도심제조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4월 6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벌입니다.

경기 양주 흥족일반산업단지에 금속노조 현수막



경기도 양주시 흥족일반산업단지에 금속노조 홍보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었습니다. 금쪽같은 나의 권리, 금속노조와 함께해요.

충북 진천 디어포스지회 출근길 선전전



충북 진천에 있는 디어포스 공장 앞에서 출근 시간에 <바지락>을 나눠드렸습니다. 대전·충북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금속노조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 출범



부산의 3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 이주노동자도 함께했습니다.

청주 성안길 미얀마 민주화 투쟁지지 선전전



충북 노동자민중연대와 함께 청주 성안길에서 미얀마 민중의 투쟁에 연대하는 선전전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많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노동자, 민중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디지털 전환 나선 조선소, 노동조합으로 뭉치자

[산업이슈 칼럼] 조선산업 노동시장 변화 금속노조와 함께 대비해야

조선소가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소 사업주들은 스마트 야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는 선박 건조 자동화 기술 말합니다.

조선소 현장에 용접로봇과 디지털 용접기가 들어오고, 트랜스포터와 지게차에 센서가 달려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현장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철판(후판)에 QR코드를 붙여 소재 위치를 확인하고, CCTV로 대형 블록 이동을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야드 전체를 보면서 지게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Live Shipyard, 시뮬레이션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부하를 예측하기 위한 야드 View 등도 추진 중입니다. 어렵다던 곡 블록 자동화를 추진하고, 웨어러블 장비와 도장 자동 품질검사 로봇도 도입하거나 실험 중입니다. 시운전 방식도 일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팀이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신망으로 확인합니다.

최근 주요 조선소들이 위와 같은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중공업은 디지털 기반 조선소를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라고 부르고 있고, 대우조선은 DX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디지털 전환은 결국 노동력의 최소화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선소에 자동차산업 만큼 자동화를 도입하기 쉽지 않기에 사람과 협동하는 일을 자동화를 통해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조선업은 부품과 자재 크기 때문에 기계가 얼마나 사람을 보조해주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조선소 디지털 전환은 현장의 변화가 필수입니다. 결국, 노동자의 협조 없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전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한두 사람이 변화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선산업 노동시장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조건에서 디지털 전환의 진전은 조선산업의 노동시장을 산업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조선업의 전환에 대해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스마트 조선이 불러올 조선산업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 제조업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해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에 함께 대비합시다.

자동차 검사정비 노동자도 노조합시다



힘든 일 있을 때 전국 어디서나 **1811-9509**

밴드  자동차검사원119

카카오톡 채널

 자동차검사정비상담소



곱창과 칼국수 맛집, 오산 함지박칼국수를 추천합니다.

[우리네 맛집] 오산 함지박칼국수



곱창이나 칼국수를 좋아하는 분께 경기도 오산의 좋은 맛집을 추천합니다.

오산시장에 저렴한 금액으로 맛있는 칼국수를 내는 집이 여럿 있지만, 저는 <함지박칼국수>를 추천합니다. 전국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집은 아니지만, 오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먹어본 맛집입니다. 오산에서 현장업무를 볼 때, 입맛이 없으면 한 번씩 들러 먹던 칼국수와 만두는 아직도 생각나 오산에 가면 꼭 한번 들립니

다. 위치는 오산시장 부근 성호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주인이 직접 공수하는 곱창은 곱도 많고 맛도 좋아 포장판매만으로 가끔 매진되기도 합니다. 사골로 우린 육수이니 국물까지 꼭 다 먹으라고 주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졸이면 졸일수록 구수한 육수와 점점 더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곱창을 좋아해서 곱창전골을 추천하지만, 혹시 재료가 떨어졌다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은 얼큰 칼국수, 매운 음식 못 드시면 만두전골을 추천합니다.

김주환 / 금속노조 서울지부 K Car지회



2021년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공단노동자 신문 <바지락>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면을 만들어 신문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만난 길고양이,
일하다 문득 눈에 들어온 내 낡은 안전화,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친구랑 마신 쏘맥 한 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투고해주신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실을 예정입니다.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 6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 방법

사진과 글을 <바지락>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하는 방법



①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이나 채팅 검색창에 '#바지락'을 검색하면 #바지락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② 스마트폰이나 PC로 <http://bit.ly/bazirak> 에 접속하면 #바지락 채널이 뜹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 시

사진과 글 보낼 주소 : liandai21@naver.com